

며 粗骨材는 비교적 強度가 弱하다.

(5) Block 은 製作보다 구입하는 便이 저렴하며 구입이 용이하다.

(6) Terrazzo 220板은 300×300, 220×220 등을 많이

使用 托록 設計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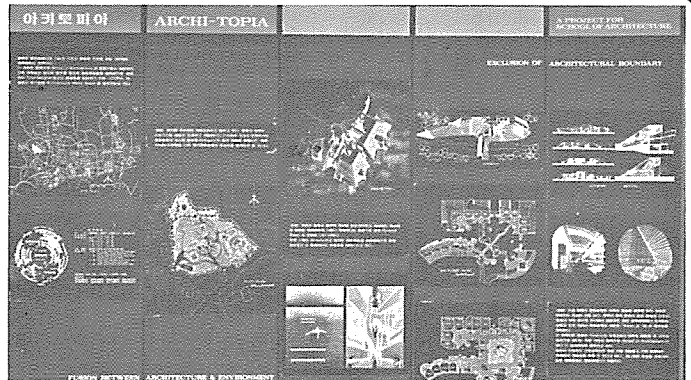
(7) 資材의 구득이 용이치 않다.

끝으로 海外工事에서의 特殊한 資材는 早期發注로 工期에 맞도록 공급해야 한다고 본다.<*>

* 6 월인터뷰

朴 弘씨 / '81 봄 国展 建築部門大賞作家 /

建築教育의 요람 “아키토피아”



□ 大賞수상작품 「아키토피아」



□ 현대건축의 非人間性을 우려하는 朴 弘씨

「요즘의 건축물은 비인간적이고 유물론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고 할까요…….」

• 올 봄 国展 建築部門에서 大賞을 受賞한 朴弘(中央大 建築科 조교수)씨가 말하는 현대 건축에 대한 견해다.

“아키토피아”로 큰상을 받은 朴弘씨는 이 작품을 제작하게된 根源의인 動機도 역시 건축의 인간성상실에서부터 비롯된것이라고 말한다. 건축교육의 不合理도 큰 動機가운데 하나라고…….

현행 우리나라 건축교육은 건축하면 곧 工業만을 생각하는 절름발이로 되도록 짜여져있다는 것이

朴弘씨의 主張이다. 건축은 어느 한 部分만의 藝術이 아니라 종합 예술이며 특히 디자인중심의美的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다.

이런 點에 비추어 볼때 「건축=공학」이라는 교육정책은 건축문화의 장래를 위해서도 꽤 위험한 것임을 강조한다. 실제로 大學에서의 건축학과는 工科大学쪽에 있으나 建築美術学科는 예술대학쪽에 있어 건축과 미술의 일체성을 교육에서부터 부정하고 있는 實情임을 안타까와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에 建築美術을 공부할 수 있는 학교도 2개 대학에 불과하다고. 해서 理想的 建築教育, 理想的인 建築文化를 실현하는 方案으로 그 殿堂을 꾸며본 것이 바로 “아키토피아” 즉 건축전문대학이다.

그는 이번 作品을 구성함에 있어 건축을 기능과 구조의 해결을 전제로 하는 3차원적인 空間造形의 世界라고 못박고 이 계획을 건축대학(school of Architecture)의 提案으로서 일반적인 건축계획상의 상식적 범주를 탈피한 自由분방함을 造形的으로 추구하여 Total Designer로서의 건축가를 양성하기 위한 「유토피아」의 건축의

매개공간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을 마무리지으며 그는 지금 한국의 건축교육은 건축의 藝術의정신을 잃어버린채 誤導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하고 정책의 졸속, 철학의 빈곤, 운영의 난조와 인식 부족 등으로 우리들의 신앙과도 같은 건축언어들이 퇴색되는 상황과 도전속에서 건축교육의 새로운 「비전」과 「場」의 필요성을 절감한다고 강조하고 이 계획안은 건축의 「토탈리티」와 건축교육의 특수성 때문에 큰 규모의 綜合大學보다는 작은 규모의 건축대학이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내놓은것이라고 한다.

지난 79년에도 文公部長官賞(을지로 재개발계획)을 받은 바 있는 朴弘씨는 中央大에서 건축계획, 의장설비, 건축특론을 강의하고 있다.

이번 作品을 제작하는 동안 학교강의준비하랴, 각종 공식석상에 참석하랴등, 좀처럼 틈을 내서 차분하게 作業을 할 수 없어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계속 作品활동을 하고 기회가 닿는대로 外國에 나가 보다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고한다.<*>